

보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자료	언론담당 :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 010-9727-4035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010-4806-3142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 청와대를 향한 십만의 함성 -

■ 일시 : 2014년 8월 15일(금) 15시

■ 장소 : 서울광장

■ 대회명칭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청와대를 향한 십만의 함성

■ 공동주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세월호가족대책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일반인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국민대책회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홈페이지 : sewolho416.org
 - 범국민 서명페이지 : sign.sewolho416.org

■ 대회 개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세월호일반인대책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범국민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전남 10대, 전북 6대, 광주 16대, 부산 9대, 경남 11대, 울산 10대, 대전3대, 충북 4대, 충남 10대, 대구경북 13대 등 세월호버스 100여대가 올라왔습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바, 전체 참가규모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며, 최소 수만 명 이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범국민대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등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여야의 재협상은 물론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중에는 세월호 가족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종교, 영화, 음악인 등 각계각층 참가자들의 다양한 발언과 공연이 계획돼 있습니다.

범국민대회는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고, 집회 후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진 경로는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공지합니다. 또한 본 대회에 앞선 오후 2시 반부터는 음악인들의 공연과 영상으로 구성된 사전 행사도 진행됩니다.

한편, 오늘(8/15일)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 등 38명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고 그 중 10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황님은 생존학생이 쓴 간곡한 편지를 받으셨으며, 가족들이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한 교황님은 가족들이 드리는 선물도 받아 주셨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미사를 집전했으며, 미사 중에 세월호 가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세월호 가족들은 교황께 드리는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으며,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를 통해 교황께 전달될 것입니다. (편지 한글번역본은 첨부자료 참조)

■ **대회 구성**(현장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행사** : 음악인 공연 / 14:30 ~ 15:00

- ▽ 음악 공연 : 인디밴드 타카피
- ▽ 영상상영 : 샌드아트 영상
- ▽ 음악공연 : 한국가톨릭문화원 밴드, 찬양거룩한 기쁨

□ **본 대회**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 15:00~17:00

- ▽ 전체목념
- ▽ 종교계 발언
- ▽ 음악공연 : 가수 박준
- ▽ 문화예술인 발언
- ▽ 세월호 지역대책위 발언 : 각 지역 총 6명
- ▽ 해외 참가자 발언 : 남태현 솔즈베리 대학교 정치학교수
- ▽ 유가족 발언 :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첨부자료 참조)
- ▽ 음악 공연 : 가수 김장훈
- ▽ 영상 상영
- ▽ 유가족 발언 : 유민이 아빠 김영오(단식 33일째)
- ▽ 음악 공연 : 이승환 밴드
-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
- ▽ 폐회

□ **행진** / 17:00~

- 행진경로 : 현장에서 공지

※ 이하 참고자료

- 가족대표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발언문
- 세월호가족대책위 기자회견문
- 교황께 드리는 세월호가족 편지

〈가족 대표 발언, 전명선 부위원장〉

4월 16일 내 아들 찬호를 포함해 304명의 우리 가족들이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혀 스러져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 땅을 쳤지만 그리고 어떤이는 기절도 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부 당국에게 격한 항의도 하고, 소리도 쳐 보았지만 그들은 구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도 단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애 타게 찾으며 스러져 갔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왜 스러져 가야 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방송국을 찾아 갔고, 청와대에 가서 항의도 했고,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이틀을 꼬박 걷기도 했으며 국회에서 밤을 지새며 참사 4개월 동안 하루를 한달처럼, 일주일을 일년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 참사의 진상이 밝히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서리 쳐지게 깨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분들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국민만이 우리가 기대 언덕이고, 함께 끝까지 해주실 유일한 분들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을 탈출하려고 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강조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례가 없다고, 사법체계를 흔들다며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사생활이라면 애써 감추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 거부로 청문회를 무력화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 얘기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자면 낸 법안이 크루즈산업육성법안입니다.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대상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세월호 참사 때 문제로 지적된 한국해운조합처럼 민간 기구인 크루즈산업협회에게 안전 관리를 맡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시작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없이 이런식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돈]과 바꾸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호소에 대통령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이 헛 이야기가 아니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저 바다를 다 마셔서라도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구하려 했던 마음이 여전하기에, 그리고 그 마음을 국민분들이 믿어 주실 것이기에 조금하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가려 합니다. 끊임없이 참사가 반복되어왔지만 너무 쉽게 잊어왔던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잉태하고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놓을 수 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400만명의 시민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00만 서명만 되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가족은 적지만 100만의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300만이 넘고 400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도 정치권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서명을 시급히 완료하기 위해 가족대책위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 광장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우리들의 베이스 캠프이고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집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어울어지는 만남의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지역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진전 일수 있고, 거리 강연회일 수 있고, 촛불 문화제 일수 있고, 1인 시위일수 있고, 국회의원에서 특별법을 호소하는 한통의 전화일 수 있고, 세월호 기사의 의견 댓글 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믿고 저희는 한 걸음 한걸음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직하게 지금에 왔던 길을 가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특별법을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14. 8. 15.

〈세월호가족대책위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죽어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보랏빛이었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테니 보여주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미운 짓 한다고 서운하던 때조차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그래서 못다 전한 사랑한다는 말이 한가득 쌓였는데 전할 방법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무엇이든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랏빛 얼굴조차 아직 만나지 못한 열 명의 실종자에 대한 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참사가 반복되어왔지만 너무 쉽게 잊어왔던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습니다.

대통령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약속이 아니라 책임 회피라는 것은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5월 대국민담화의 약속은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국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7월 본회의에서 제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밝혀야 할 진실인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더욱 숨어들어갔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잠을 청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온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여야의 밀실 합의 소식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노한 우리는 여야 양당에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협상을 약속한 여야 원내대표는 무엇을 골몰하고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적당히 무마하려고 골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진

상 규명 권한을 걸고 싸우지 않은 채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우리를 완전히 포기시키려고 골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명사회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수사권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칼자루를 쥐는 것은 문명사회입니까? 피해자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한 달 넘게 단식을 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은 문명사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포기라는 단어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포기라는 단어를 가져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눈속임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십시오.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청와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몇 걸음 떼기도 전에 경찰들이 달려와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앉은 우리를 경찰은 사지를 잡아끌며 길옆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규탄은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청와대를 향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국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결국 청와대일 뿐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가족의 감사를 전합니다. 여전히 청와대를 지키려는 자들이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방법을 정히 모르겠다면 우리가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은 국민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로 오려고 합니다. 해산되어서는 안 될 진실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산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다시 오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일이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4. 8.14.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가족들이 교황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황님. 저희의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세월’은 한국말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배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가족들 시간은 흐르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글을 쓰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죽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부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 숨을 쉴 때마다 “보고 싶다” 한탄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은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딱 한번만이라도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에 불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시신이 상할까봐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종되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10명이 됩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라도 찾았지만 그들은 DNA확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도 없게 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4명이 배를 탔다가, 엄마는 시신으로 돌아오고, 아빠와 7살 아들은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해, 5살 딸만 살아남은 가족도 있습니다. 5살 딸은 “엄마 아빠, 오빠가 나만 두고 이사 갔다”고 울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화재 현장에 직접 달려가 구조 활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방차보다 먼저 달려가 법원이 판결 내렸을 때도 어영부영 넘어간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화재의 숨은 원인이 드러났고 피의자들은 호된 심판을 받아야 했다 들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수 백 명 신부님 수녀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이 쓸모없도록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국회, 심지어 언론은 가족들 요구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구는 단순합니다. 가족들이 죽어간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배를 바다에 띄웠는지,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방송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고, 해양경찰들이 제대로 구조도 하지 않는데 대대적인 구조작업 중이라 거짓 방송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주겠다 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가족을 무시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라더니 청와대 가는 길을 경찰이 막습니다. 두려운 것이 있나 봅니다. 대통령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던...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그조차 알려 하지 말라 합니다. 참사를 조사하는 책임 여당 국회의원은 가족을 모욕하는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항의하는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러 크게 다치고 있습니다. 사고에는 무능했던 정부와 여당, 공권력은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할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말과 기만으로 일관된 상황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 것도,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참사의 원인이 된 부정부패가 바로잡혀 다시는 우리처럼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해에도 몇 개씩 벌어지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아는 국민들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에서 힘없는 국민들만이 우리에게 '국가'였습니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교황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 박성호가 그 아이입니다. 성인 집안의 김웅기도 예비사제였습니다. 장준형 학생도 사제의 꿈을 꾸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최성호, 엄마가 새로운 직장을 잡도록 같이 공부하자고 했던 견호도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이혼 이후 두 딸을 어렵게 키우던 유민아빠는 유민이를 잃고서 30일 넘

는 단식으로 온 몸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 할 수 없는 보석 같은 내 아이들, 눈앞에서 잃어버린 아이들, 교황님 우리 가족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왜 죽었는지는 밝혀야 죽어서라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그런지 꿈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입던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다니지만 그마저도 다 낡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친구를 두고 왔다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생활했던 교실에 찾아와 책상 줄을 맞추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멈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가 죽음 같은 고통이고 뼈가 아프고 심장이 녹습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말라 기도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가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만이 아닌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모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진실을 찾는 길만이 저희들에게 멈춘 시간이 흐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죽어간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도록 살피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부정부패와 냉담한 현실 속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2014년 8월 14일
세월호 가족 일동 드림